



육필 회고에 제주도방언 연구와 삶의 궤적

연암 현평호 탄생 100돌 기념 93년 한라일보 연재물 바탕 회고록 '되돌아본 세월' 발간 기념사업위 전국학술회의도

“제주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국어학도로서 이 지역의 학술 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 학술 자원 중에서도 제주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개척해보자는 의욕을 자연 갖게 되었다. ... 방언 중에서도 제주지역의 방언은 여타 어느 지역의 방언보다도 국어학상 특이한 점이 많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93년 4월 28일자 한라일보에 실린 '되돌아본 세월' 중 일부다. 집필자는 제주대 초대 총장, 제주방언 연구자였던 연암 현평호(1920~2004) 선생. 1993년 3월 6일부터 8월 14일



'되돌아본 세월'에 실린 1982년 3월 1일 종합대학인 제주대학교 현판식. 왼쪽 두 번째가 초대 총장인 연암 선생이다.

까지 연재된 '되돌아본 세월'에서

연암은 유년기, 첫 교단 생활, 제주도방언 연구, 제주대 종합대학 승격 추진 과정 등을 풀어냈다. '개인 사정'으로 45회에서 연재가 마무리되었지만 연암의 삶과 학문적 배경을 살필 수 있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연암 현평호 탄생 10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한라일보 연재물을 바탕으로 '되돌아본 세월' (비매품)을 엮었다. 회고록엔 한라일보 발표 지면을 영인해 수록했고 주요 연보, 연구 업적 목록, 관련 자료와 발간물 서문, 학장·총장 취임사 등을 '연암의 삶과 궤적'

이란 별도의 장으로 보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5일 제주대에서 '연암 현평호를 그리다' 전국학술회의도 열었다. 발표자들은 '되돌아본 세월' 등을 인용하며 연암을 추억하고 그리는 자리를 가졌다. 연암은 독립 제주초급대학이던 1954년 전임강사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은 이래 34년간 봉직하면서 제주대 5대 학장을 맡아 용담동에 있던 대학을 지금의 아라캠퍼스로 성공적으로 이전시켰고 '제주도방언연구'를 내는 등 음운, 문법, 어휘, 방언 연구사 등에 귀감이 되는 업적을 남겼다.

연암의 제자인 강영봉 제주어연구소 이사장은 "회고록을 통해 선생의 변함없는 삶의 자세와 제주도 방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지녀야 할 태도, 교육 행정가로서의 건실한 삶을 조금이나마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시(詩)로 읽는 4·3 (70)

바람, 의 묘지-제주4·3항쟁에 부쳐

이민숙

| | |
|----------------------------------|---------------------------------|
| 바람이 죽어서 가는 골목, 바람이 분다.....살아야겠다 | 너머 너머 암흑 너머, 바람이 분다.....살아야겠다 |
| 사랑이 죽어 날아가는 허공, 바람이 분다.....살아야겠다 | 적막대 제주도 윤술 바다, 바람이 분다.....살아야겠다 |
| 그리움 죽어서 더한 그리움, 바람이 분다.....살아야겠다 | 바람 깃털로 휘날리는 하루가 떠오른다 동그란 열애 |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세찬 마파람은 내 책을 펼치고 또한 달으며,/ 물결은 분말로 부서져 바위로부터 굳세게 뿜쳐나온다./ 날아가거라, 온통 눈부신 책장들이여!/ 부쉬라, 파도여! 뉘노는 물살로 부쉬 버려라/ 뭇배가 먹이를 쪼고 있던 이 조용한 지붕을!”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Paul Valery, 1871~1945)의 시 '해변의 묘지(Le cimetiere marin)'에서 뽑아보았다. 해변의 묘지는 우리의 시간이 묻힌 언덕이다. 그 언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았다. 4·3은 바로 바람이 죽어서 가는 길목이다. 4·3은 사랑이 죽어 날아가는 허공이다. 그리움이 죽었다. 암흑이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살아야 한다. 미군정 하에서 일어난 4·3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1960년 4월 19일 이전까지는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반란이고, 군정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1960년 5월 제주대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 진상조사 작업에 나섰다. 1960년 4·19혁명으로 비로소 시작된 4·3 사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해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 4·3사건 진상규명 운동은 1989년에 이르러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제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은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주항쟁 추모제'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했다. 1990년 유족들은 '제주4·3사건민간인회생자유족회'를 조직했다. 20세기를 보름 넘겨둔 1999년 12월 16일 국회는 '제주43사건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세계사관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과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의 필연성을 인식해야 한다." 헤겔(Friedrich Hegel) 4월 19일 이전까지는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반란이고, 군정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것에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흔들림 없는 작은 생명들 눈부셔라

강술생 개인전 '마음의 집' 생태적 사유 설치·회화에

작은 생명, 작은 존재에 대한 생태적 사유가 배인 작업을 꾸준히 펼쳐온 강술생 작가. 제주를 대표하는 생태 미술 작가로 인간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평이하지 않는 작업으로 풀어냈던 그가 이번엔 '내 마음의 GPS 찾기'를 주제로 개인전을 벌인다. 7일부터 16일까지 갤러리비오톱(제주시 신성로6길 29) 1-2층에서 여는 '마음의 집'전이다. 설치와 평면 회화로 표현되는 '집'은 블로소독의 상징처럼 되어버

린 그 집이 아니다. 작가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로의 집"을 짓는다. 거기엔 제자리를 차츰 잃어가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 대한 반성이 있다. 제주 토박이인 강 작가는 한라산 백록담으로 향하는 길에서 밟았던 돌맹이들의 사연을 들려줬다. 흔들림 없이 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돌맹이들이 큰 산을 이루고 있듯, 변화되고 있는 제주의 모습에서 저마다 온전히 있어야 할 곳을 찾고 '마음의 집'이 분양되기를 바란다. 갤러리 1층은 2017~2019년 기존 작업들을 기초로 공간을 구성했다. 2층엔 설치작업을 평면에 옮기는 방식



강술생 개인전 '마음의 집'.

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담구한 작품들이 놓인다. 전시장 개방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천과 한지쪽을 이용해 태양이 그리는 빛과 그림자의 정서를

담아내려는 전시 의도를 반영한 시간이다. 매일 오후 5~7시에는 예약제로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예약 문의 010-5282-3261. 진선희기자

문학의 의미와 그 운명에 대한 탐색

허상문 평론집 잇단 출간

제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상문 평론가(영남대 명예교수, 사진)가 두 권의 평론집을 잇따라 펴냈다. '폐허 속의 비평' (소소담담)과 '오르페우스의 시학' (수필과비평사)이다.

'폐허 속의 비평'엔 지난 몇 년 동안 '수필미학', '수필과 비평', '에세이문학', '문학동네' 등에 실었던 평문을 모았다. '지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전망과 과제-제주



문학을 중심으로' 등 강연 원고를 제외하곤 수필 평론이 다수 묶인 책으로 수필 문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허 교수는 "수필 문학을 위시한 우리 문학이 지금 폐허의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인간과 세상, 자연과 우주에 대하여 진실로 더욱 슬퍼하고 더욱 절규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오르페우스의 시학'은 오늘날 자

본주의와 기술이데올로기에 의해 위협받는 문학의 의미와 그 운명에 대해 살핀 문학평론으로 채워졌다. 문학이 갈수록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문학의 본래적 역할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순이, 오승철 등 제주 문인들의 작품을 다룬 글을 비롯 30편이 실렸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박근주 개인전 '현실이상'

현인갤러리 박운섭 초대전

2017년부터 제주에 살고 있는 박근주 작가가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이곳에서 만난 건물과 풍경을 담은 개인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제주시 중앙로 돌담 갤러리에서 '현실이상'이란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개인전에서 박 작가는 제주 사람들이 반복하듯 스치는 장면에서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그가 색과 면으로 재창조한 화면은 현실과 이상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 관람객들은 제주에 흠뻑 젖어있는 일상적인 건물이 낯선 얼굴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전시는 이달 18일까지.

꽃물 든 화폭이 여름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제주 현인갤러리 기획 초대전으로 마련된 박운섭 작가의 '행복 꽃 필 무렵' 전이다.

'행복을 그리는 남자'로 소개된 박운섭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북미술대전 초대 작가다. 박 작가는 "사랑, 희망, 행복을 가슴에 품으니 어느새 내 화폭엔 갖가지 아름다운 꽃물이 들었다"면서 사랑의 설렘이 깃든 봄꽃, 열정으로 가득한 여름꽃, 그리움 실려있는 가을꽃, 인내를 배우게 한 겨울꽃으로 초대했다. 전시는 이달 12일까지. 문의 747-1500.

더맨 신사정장과 강남한복은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넓은 주차장과 가족 모두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품격있고 격조있는 디자인, 장인정신이 묻어나는 강남한복, 더맨양복에 놀라실 것입니다.

니가 왜 이제야 왔어~ 기다렸는데~

정장/한복

최저가

양복 대여 **39,000** / 한복 대여 **99,000**

8월 12일 OPEN

신사정장전문브랜드 더맨 | 서사라사거리 | 연삼로 | 보건소사거리 | 연삼로 | 제주시보건소

| 신사정장 전문브랜드 | **The MAN** | 강남한복 | 판매·대여 전문점 |

제주시 오남로 20
064 752 8899